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이고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제정한 탈핵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14일) 오후2시에 유아세례교육(유치부실)과 성인세례교육(청년부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2시에 장로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 : 방문성, 취임 장로 : 김정민 박홍재 하현철)

3월 22일 주일 오후 2:30에 수납전문가(백미영 강사)를 초청해서 '정리수납의 기본원칙과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민 21:4-9 / 시 107:1-3	2부 예배	
예배	엡 2:1-10 / 요 3:14-21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김신실 안상숙 김혜영 이순용 이주경  
 다음 주 식당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운숙 김선영 이오복 권정연 조장형 한상균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커 피 대 접 : 문금석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 땅이 녹고 못 생명들이 땅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바쁜 일상과 피로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 하루하루를 당당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칠고 폭력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우리들 안에 미움과 폭력의 기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있는 거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폭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구명자	권미정	김광일	이부용	김성한	조영순
김인걸	문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주	김정미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민지희	박규석	박경선	박다니엘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창운	허정운	백묘현	백재경	이수정	서원금
서정순	성지현	송동준	김진경	송형운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심해성
김정숙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원용일	최현선	윤주원	최윤선	이건우
이계숙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에서	이용석	이용현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은실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임영선	임주빈	최현옥	임호성	정두리	정종삼	조순덕	조지연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준호	홍복선	홍소형	임이랑
홍예선								

### 감사헌금

김필순	김흥기	문복순	박옥순	방문성	백혜숙	송인선	안보혜	양재민
안상남	오진훈	노순옥	이계선	이소순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순정
이왕준	송상경	이유선	이은주	이정은	이지안	이치림	강상연	장성호
홍순구	안홍숙	홍예선	무명11					

### 생일감사헌금

김지윤 문금석 신영신 이현순 정두리

###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정주 김정미 김항자 안정준 윤미경  
 윤수진 은종인 허명선 무명3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김경혜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이오복		

# 탈핵주일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춥디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겨낸 모든 피조물들이 새 움을 돋우고 꽃망울들이 눈을 뜨며 생명의 물오름이 왕성해 가는 이 거룩한 계절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구나!” 하셨던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 망가져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회복을 위해 탈핵주일을 선포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30년 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아직 그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불과 4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그 참담한 현장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절규를 우리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로되어야 할 30년이 훌쩍 넘은 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멈추고 서다를 반복하며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 한반도 땅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속삭이며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해 4월 16일,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초래할 수 있는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았고, 아직도 깊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처절하게 들려오는 위기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또다시 무섭고 끔찍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2015년에는 잔뜩 밀린 숙제들을 함께 풀어가며, 이 어두움의 역사 한복판을 힘차게 가로질러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정의의 길을 다시 닦아 마침내 하늘의 뜻이 이 땅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거룩한 계절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익혀가는 은총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온 생명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김정민 박홍재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길을 여쭙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가는 이가 되십시오.

아멘. 자주 인생길을 헤매면서도 주님께 길을 여쭙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깊이 반성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참된 진리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주일오후집회 / 청파성서학당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설교: 김재흥 목사
	수요 저녁 / 여호수아서 강의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장성호 선생 송동준 집사

3	영접위원	김인걸 이민범 김경연 이명희 오자영 박시내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믿음으로 읽는 글

## 삼월만 되면

삼월만 되면 삼일운동 소리를 의례 해야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삼십년 오십년이 지나가도 삼일절 소리만 크게 하는 것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열다섯이 돼서 소꿉 노는 젊은이는 없습니다. 이제 대장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삼일운동은 그때의 그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자라지 못했습니까? 생명은 있는 것이요 버리는 것입니다. 하고난 다음에는 역사의 고간에 가만히 두지 밤낮 그것만 꺼내 들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희극이 돼버립니다. 삼일정신이 잘 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삼일정신이 귀할수록 자라는 나무가 제 몸을 연륜 속에 묻어두듯이 그것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조상을 잘 물어야 새 자손이 납니다. 조상 자랑밖에 할 것이 없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 아닌가요?

삼일운동은 역사의 연륜 속에 가만히 싸두고 우리는 푸름으로 창조 의 진액을 돌려야 합니다.

강자란 것은 제 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떠나 저란 것이 없는데 제 생각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드러운 기운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이른 바 없는 자에게서는 있는 것까지 뺏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강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벌인데 사랑의 진리를 무시한 그 마음은 그런 줄 모르고 그것을 점점 더 제 잘난 것으로 알고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강자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부드러운 씨알이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 궁전과 국보라는 것들을 가보시오. 옛날에 겸손한 씨알들을 누르고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던 것

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이름 없는 씨알들이 몰려와 그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성격은 무서운 것입니다. 꼭 같은 생명이요 꼭 같은 환경인데 소란 높은 제 생명을 보호하노라 취한 길이 제 살고 난 찌꺼기로 굳은 껍질을 만들어 쓰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길에서 해방이 못되고 새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소라 껍질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껍질을 아니 쓰면 항상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데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영원히 망했고 아테네는 아직도 세계의 인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성격은 무섭지만 성격을 능히 고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갑옷은 강철과 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갑옷으로 썩습니다. 모든 갑옷은 썩었습니다. 모든 굳은 것 단단한 것은 썩었습니다. 뼈다귀는 썩습니다. 그러나 붓은 영원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붓은 자유자재로 돌아가게 하는 숨, 기운은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의 숨이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성격을 녹이는 것은 오직 이 하늘 숨, 정신의 기운입니다.

지금은 숨을 내쉬는 때요 기운을 마시는 때입니다. 생명의 님의 말씀이 하늘 땅에 사무쳤습니다.

죽은 자는 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